



* 등급정보 (닭고기) *

> 25개 업체에서 생산한 482만2천수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은 43만1천수(8.8%), 1등급은 416만7천수(86.4%)를 판정, 전월(24개 업체, 262만1천수)대비 220만1천수(81.0%) 증가, 전년동기(21개 업체, 435만8천수) 대비 46만4천수(10.6%) 증가, 금년누계는 1천211만9천수로 전년동기누계대비 776천수(8.2%) 증가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 및 출현율

(단위: 수, %)

구분	등급판정수수	품질등급별 출현현황		
		1등급	1등급	2등급
11년 1~ 3월	10,219,191 (100.0)	891,938 (8.7)	8,405,046 (82.2)	922,207 (9.0)
11년 2월	2,620,973 (100.0)	211,361 (8.1)	2,105,265 (80.3)	304,347 (11.6)
11년 3월	4,821,781 (100.0)	431,015 (8.8)	4,167,089 (86.4)	223,677 (4.6)

주) 2007.3.26일부터 닭고기 등급판정 재개

* 축산뉴스 (닭고기) *

† 제주도 가금류 · 쇠고기반입, 우제류 반출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로 반출입을 금하던 가금류 · 쇠고기의 반입과 우제류의 반출을 허용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밝혔다. 우제류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가금류는 올 1월 1일부터 반출입이 금지됐었다. 도는 우제류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반입금지를 유지하고 벗집 등 조사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에서만 반입허용키로 했다. 또 마지막 AI 발생일로 부터 21일이 지난 시 · 도에서 생산된 병아리, 종란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은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가금 성숙은 오리를 제외해 닭 종계만 반입을 허용하되 해당 종계장에 대한 AI 검사 및 제주도 방역관이 현장을 확인 후 반입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반출이 금지됐던 축우와 돼지와 가금은 모두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모든 가족은 도내 차량으로 제주항까지 운송한 후 육지부 차량으로 바꿔 싣는 방법으로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조력준 도 축정과정은 "이번 반출입 허용은 구제역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보단계로 하향 조정되고 고병원성 AI 발생이 경부

대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최종발생이 21일 경과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이다"며 "반입금지 조치로 그동안 수입이 어려웠던 가금육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 닭고기 저가 판매중단 촉구

양계농가와 치킨점 업주들이 대형마트들이 미끼 상품으로 닭고기를 저가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닭 · 오리 생산자와 판매자 모임인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가 생산비 이하로 닭고기를 판매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한숨짓는 양계농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롯데마트는 5천원에 '통큰치킨'을 판매했으며 홈플러스는 최근 닭 한 마리에 1천원인 '착한 생닭'을 판매했다. 협의회는 "병아리 한 마리가 800원인데 홈플러스가 닭 한 마리를 1천원에 판매해 정가에 판매하는 것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